‘캡틴 VS 막내’ 상암벌 맞대결

〈박지성〉

〈기성용〉

■내일 맨유-서울FC 친선경기

박지성, 맨유 유니폼 입고 첫 선
기성용, 2년전 0-4 패 설욕 다짐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무대를 빛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캡틴’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과 ‘막내’ 기성용(19·서울)이 처음으로 ‘적’으로 만난다.

무대는 금호타이어컵 ‘맨유 코리아투어 2009’다.

박지성과 기성용은 2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지는 맨유와 FC서울의 ‘맨유 코리아투어 2009’에서 태극유니폼 대신 각자 소속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나선다.

축구대표팀의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큰 힘을 보탠 주축 선수끼리 맞대결이어서 팬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 2007년 맨유 방한 경기 때 무릎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했던 박지성으로선 맨유 유니폼을 입고 처음 고국 무대를 밟는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

기성용 역시 지난 2007년 홈 구장에서 맨유를 만나 0-4로 대패했던 쓰린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어 대표팀 고참과 ‘우정의 대결’을 넘어 내심 FC서울의 명예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맨유는 지난 2007년 7월 첫 내한 경기에서 서울 상대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크리스 이글스, 웨인 루니, 파트리스 에브라의 연속골을 앞세워 4-0으로 완승했다.

서울은 당시 정조국, 이상협을 전방에 세우고 히칼도와 이청용, 기성용이 중원 2선에서 지원 사격을 했지만 루니와 라이언 긱스, 마이클 캐릭, 폴 스콜스, 에브라, 리오 퍼디낸드, 에드윈 판데르사르 등 추정 몸값만 3천200억원에 달하는 맨유의 파상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골을 내주고 말았다.

하지만 서울은 2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당시 서울은 주전급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정규리그 8위에 머물면서 고전했지만 지금은 당당히 정규리그 1위를 지키면서 최근 8경기 연속무패(6승2무)의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비록 오른쪽 날개를 맡아온 젊은 피 이청용(20)이 프리미어리그 볼턴 원더러스 입단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전력 누수가 걱정되지만 서울은 기성용의 중원 지휘를 바탕으로 골감각이 살아난 정조국과 ‘몬테네그로 특급’ 데얀의 발끝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맨유와 첫 대결 때 17살에 불과했던 기성용은 대표팀 세대교체의 주역으로 성장해 맨유를 상대로 ‘중원의 지휘자’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각오뿐이다.

이에 맞서는 맨유도 최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팀을 떠났지만 박지성을 필두로 조란 토시치, 루이스 나니, 대런 플레처 등 측면 자원이 굳건하고, 최근 영입한 마이클 오언이 말레이시아 투어에서 두 경기 연속골을 터트릴 만큼 최고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어 화끈한 골 사냥을 예고하고 있다.

박지성 역시 말레이시아 투어에 빠지는 동안 국내에서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해온 만큼 국내 팬들과 첫 그라운드 대면을 앞두고 화끈한 ‘공격 본능’을 보여주겠다는 태세다. /연합뉴스

앤서니 김 “캐나다에서 첫승을”

오늘 PGA 캐나다 오픈 출전
위창수·양용은도 우승 도전

‘스코틀랜드의 악몽은 잊자’

제138회 브리티시오픈골프대회에서 컷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이 캐나다로 날아가 우승에 도전한다.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샷 감각을 찾아가던 앤서니 김은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브리티시오픈 1라운드 2번홀(파4)에서 무려 5타를 잃어버린 뒤 만회하지 못하고 2라운드가 끝나자 짐을 싸야 했다.

23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크빌의 글렌애비 골프장(파71·7천222야드)에서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캐나다오픈(총상금 500만달러)은 상금 규모는 메이저대회에 비해 떨어지지만 브리티시오픈, US오픈 다음으로 긴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다.

골프전문가들이 앤서니 김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는 이유는 브리티시오픈이 끝난 뒤 열리는 대회라 톱랭커들이 불참하는데다 지난 해 보여준 경기력 때문이다.

앤서니 김은 처음 출전한 작년 캐나다오픈에서 3라운드까지 1타차 2위를 달리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비에 젖은 그린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동 8위로 밀려났다.

작년에는 체즈 리비(미국)가 깜짝 우승을 차지했지만 그 때 이후 톱10에도 못드는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어 앤서니 김이 신경을 써야할 선수는 베테랑 레티프 구센(남아공)과 영건 카밀로 비예가스(콜롬비아)다.

역대 대회에서 장타자보다는 정확한 샷을 날리는 단타자가 우승한 사례를 볼 때 정확한 어프로치샷과 퍼트를 구사하는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에게도 첫 우승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올 시즌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과 올 시즌 코리안 브라더스의 유일한 위너스 클럽 멤버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도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미녀들의 격돌’ 세계 비치발리볼 대회 개막

22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열린 국제비치발리볼 대회에서 미녀들이 공수 공방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부 5연패

네이버스컵 친선골프대회

남자골프 국가대표팀이 제9회 네이버스컵 3개국 친선경기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었다.

한국은 22일 제주 오라골프장(파72)에서 열린 단체전 경기에서 최종합계 685타를 기록, 2005년부터 5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2위 일본을 13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렸다.

개인전에서도 윤정호(중산고3)가 전날 10언더파 62타를 친 데 이어 이날 4언더파 68타를 기록하며 최종합계 14언더파 130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2위 우사미 유키(일본)에 5타를 앞섰다. 여자부 단체전에서는 한국이 425타를 기록해 422타의 대만에 3타 뒤져 2위를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양제윤(대전체고2)이 최종합계 2언더파 142타를 쳐 3위에 올랐다. 1타 앞선 차이페이잉(대만)이 우승했다.

네이버스컵 친선경기는 한국과 대만, 일본 아마추어 골프 국가대표팀이 기량을 겨루는 대회다. 단체전은 남자부는 6명 출전에 상위 5명의 성적, 여자부는 4명 가운데 상위 3명의 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연합뉴스

화순고 4강 안착

화랑기 고교야구…동성고는 대구고에 패

화순고가 22일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제61회 화랑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성남고와의 8강전에서 4-3으로 이겨 준결승에 진출했다.

1회초 성남고가 4개의 안타를 묶어 먼저 2점을 뽑아냈지만 화순고가 이어진 1회말 1사 1·2루에서 신진호의 2타점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곧이어 서우현의 중전안타가 나오면서 화순고가 3-2로 승부를 뒤집었다.

이후 양팀은 1점씩을 주고 받았지만 경기는 4-3 화순고의 승리로 끝났다.

광주 동성고는 대구고와의 경기에서 0-3으로 완봉패를 당하며 4강행이 무산됐다.

0-0의 팽팽한 승부가 전개되던 5회초 동성고는 1사2루에서 대구고 여청원의 2루타로 선취점을 내줬다. 그리고 이어진 2사 2루에서 김선민의 홈런포가 터지면서 0-3이 됐다. 동성고는 대구고의 선발 이재학의 호투에 발이 묶이며 완봉패를 당했다.

화순고는 23일 오후 1시 대구고와 결승행을 다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여름의 챔스리그’ 피스컵 25일 개막

성남 일화 등 세계 12개 명문팀 참가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축구 클럽들이 한여름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인다.

세계 축구 클럽들이 한데 모여 기량을 겨루는 국제클럽축구대항전인 ‘2009 피스컵 안달루시아’ 대회(이하 피스컵)가 25일(한국시간) 새벽 개막해 스페인 5개 도시에서 열흘간 열전에 들어간다.

아시아와 유럽, 남미, 북중미 등 4개 대륙에서 12개 명문 클럽이 초청돼 각 소속 리그의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인다.

K-리그 대표로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성남 일화가 나선다.

참가팀의 면면을 보면 여름에 열리는 ‘미니 챔피언스리그’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탈리아 세리에A 27회 우승과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 UEFA컵 우승 3회에 빛나는 유벤투스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강호 세비야와 A조에 속해 숙명의 일전을 치른다. 국내 프로팀 성남도 같은 A조에 포함됐다.

‘특급 윙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4)와 ‘하얀 펠레’ 카카(27)를 영입한 레알 마드리드는 알 이티하드(사우디아라비아), 남아메리카 챔피언이자 지난해 국제축구연맹 클럽월드컵에서 준우승한 리가데 키토(에콰도르)와 차례로 맞붙는다. /연합뉴스

스포츠중계

23일(목)

▲화랑기 고교야구대회 준결승 (12 : 50·Xports)

▲진하 세계여자 비치발리볼대회 (13 : 40·MBC)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009 아시아 투어 〈맨체스터 Utd : FC서울〉(19 : 45·SBS)

▲프로야구 〈KIA : LG〉(18 : 20·SBS스포츠), 〈삼성 : 히어로즈〉(18 : 30·MBCE-SPN), 〈롯데 : 두산〉(18 : 10·KBSN S-PORTS), 〈SK : 한화〉(18 : 20·Xports)

▲LPGA 에비앙 마스터스 1R (21 : 00·SBS골프)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함 수완지구 상업용지 건축상담
첨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평당 470만)
200평 22억(평당 1100만)
수완택지개발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신창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주유소
650평 35억 600평 16억
골프연습장 : 120억
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물류공장부지 2900 2600 4900평
수완동 4차선접 1200평 1800평
북구본촌동 850평
전용가능한급매물
자연녹지 : 3800평-대형차진입가 6차선접
생산녹지 : 2800평-평동공단인근 특가상담
우량임야
(연수원 복지시설 골프장 축사 등)
담양 25만평 장성 14만평 보성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50만평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매가 17억 5천만원
쌍촌동 260평
2종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여자가 만든 더 쎈놈
강하게 흔들어주니 날으는 기분이네요.

살아있는 고환처럼 작지만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쎈놈이라고 합니다. 30 대주부가 부부생활에 위기를 겪다가 절망 : 방법이 없을까하고 고민끝에 특허까지 내고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반지만한 실리콘형이 부드럽게 자극으로 흔들어주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면서 남편을 재활처럼 예뻐드니 쾌브쾌감은 더 쎈놈을 애용하게 됐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하지않음)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 사진 게재를 할 수 없음.
저렴한 가격 98,000원 (다이아몬드경 추가시 30,000원)
요부로 유혹하는
Sok gung hap

이 세상에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답니다.
Sok gung hap 으로 이슬비처럼 촉촉히 젖어 들어 여자에 가슴을 설레게 하는 환희에 기쁨이 넘쳐나면 합궁시 은밀히 살짝 사용하면 내 남자의 바람기를 명기로 확실히 잡는답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통신판매신고증 제 19-5301호〉
상담 02)2677-0231~2
전화 010-5296-4114
글로벌 농협 569-12-034626(배의자)